

# 해외의약뉴스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카 바이러스-소두증 연관성 보도

### 개요

1947년 우간다에서 최초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의 흔적이 브라질에서 소두증으로 인해 사망한 아기의 조직에서 발견되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임산부에게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하며, 성 접촉과 수혈로 인한 감염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 키워드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 선천성 기형

미국 보건당국(U.S. health officials)은 브라질에서 두부(head)와 뇌(brain)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birth defect)으로 인해 사망한 두 아기의 조직에서 지카 바이러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프리든 박사(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장)는 “이것은 현재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소두증(microcephaly)의 원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고 하원 외교위원회(the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에 말하며, 지카 바이러스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든 박사와 안토니 파우치(director of the U.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 미국 국립보건원 알러지 및 감염병 연구소장)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18억 달러를 미국 의회에 요청했다.

지카 바이러스는 1947년 우간다에서 최초 확인되었고, 작년까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사실 감염된 사람의 약 80%가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 브라질에서 이러한 사례와 선천성 기형이 증가(약 4,100명 이상으로 추정)함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은 임산부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임신을 미룰 것을 권고했다.

미국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임산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피할 것을 권고하며, 사무국은 지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카 바이러스 전염병은 지난 봄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표면에 드러난 이후, 바이러스는 30개 이상의 나라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지역에 퍼졌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내년 미국에서 4백만 이상 감염 될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 따르면, 지원금은 모기 통제 프로그램(mosquito-control programs)의 확장, 백신 개발 가속화, 진단테스트 개발, 저소득층 임신부에 대한 지원 향상에 사용될 것이다. 또한 파우치 소장은 백신은 적어도 내년 중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브라질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수천명의 선천성 기형을 근거로, 지카 바이러스는 현재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WHO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또한 새로운 CDC 권고사항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지카 바이러스가 전파된 지역을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남성들은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성 접촉 시 피임기구를 사용하거나 성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CDC는 성 접촉에 의한 위험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텍사스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모기가 아닌 성 접촉으로 인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댈러스 카운티 보건복지부(the Dallas County Health and Human Services Department)는 지난주 베네수엘라(라틴아메리카 지역 중 하나)를 방문한 사람과의 성 접촉 후,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과학자들은 지카 바이러스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은 최근 몇 년 동안 비슷한 사건의 보고서와는 다른 결과이다. 만약 연구진이 바이러스가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바이러스의 감염을 포함한 노력들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혈액 공급 또한 면밀히 관찰되고 있다. 2월 3일, 미국 적십자사(the American Red Cross)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한 혈액 기증자들에게 28일간 혈액 기증을 미뤄달라고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Stramer박사(미국 적십자 과학 담당 부사장)는 미국에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백악관(White House)에 따르면, CDC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 5일까지 미국 내 모기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는 없었으나, 바이러스 확산 지역(중남미, 카리브해, 태평양)을 다녀온 약 50명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약 3,177명의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소두증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보고는 없다고 했다.

#### ■ 원문정보 ■

[https://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7174.html](https://www.nlm.nih.gov/medlineplus/news/fullstory_157174.html)